

유한양행



손흥민 파스로 유명한 안티푸라민 파스는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파스입니다. 이 파스를 처음 만든지 거의 100년이 되었으니 정말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파스를 처음 만든 사람은 유일한 박사님입니다.



유일한 박사는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선교사를 따라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일한 박사는 어린 나이부터 혼자 미국 유학 생활을 했는데 공부도 잘했고 미식축구에도 도전해 주장 자리까지 맡아 장학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재다능했던 유일한 박사가 무엇보다 관심이 있었던 것은 제약 사업이었습니다.

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기생충, 피부병, 감기 같이 단순한 약만 있으면 나올 수 있는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힘들게 세운 회사를 팔아 한국에 필요한 약들을 사서 귀국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물건을 팔아 약을 사면서도 유일한 박사가 소중하게 챙긴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일한 박사가 귀국하기 전, 유일한 박사의 뜻을 들은 서재필 선생님이 '버드나무처럼 무성히 번성하라'라는 의미를 담아서 선물한 버드나무 목각화였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유일한 박사님이 만든 '유한양행'이라는 회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유일한 박사는 ‘건강한 국민만이 주권을 누릴 수 있다’라는 신념으로 유한양행이라는 제약회사를 만들고 의약품 수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유일한 박사의 회사 덕분에 아픈 사람들은 전보다 훨씬 쉽게 약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유한양행의 가장 유명한 약품인 안티푸라민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유일한 박사의 아내인 호미리는 한국에 와서 소아과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내에는 아이들이 상처가 나도 치료에 필요한 연고가 없어서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박사에게 바르는 연고를 만들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유한양행의 기술로 만든 첫 번째 의약품이 바로 안티푸라민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약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준 유일한 박사는 기업의 이익을 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기업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노력은 유일한 박사의 유언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언장

첫째, 손녀 유일령(당시 7세)에게는 대학 졸업 때까지 학자금 1만 달러를 준다.
둘째, 딸 유재라에게는 유한공고 안의 (내) 묘소와 주변 땅 5000평을 물려준다.
 그 땅을 유한동산으로 꾸미되 결코 울타리를 치지 말고 유한중·공업고교 학생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게 하여
 어린 학생들의 퇴없이 많은 정신에 깃든 젊은 의지를 지하에서나마 더불어 느끼게 해달라.
셋째, 내 소유주식 14만 941주는 전부 한국사회 및 교육원조 신탁기금에 기증한다.
넷째, 아들 유일선은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거라

이 유언장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 유한양행 홈페이지

<https://www.yuhan.co.kr/Introduce/Promote/CI/>